

‘中企 리더스포럼’ 탄생 주역 김기문 회장… “AI 양극화 해소”

(中企중앙회)

제주서 3박4일간 포럼 막 올려
‘中企와 AI 3대 강국’ 도약 화두
국회의장·총리 “中企 성장 지원”
이소영 장관도 만찬 참석해 소통

2007년 金 회장 착안으로 출범
총 19회 중 재임 기간 15차례 주도
金 “첫 행사부터 큰 호평” 회고
2012년 ‘경제 3불’ 공론화 성과

2007년 7월11일 제주 롯데호텔.
포럼은 한 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었다.

그러다 이날 중소기업계 ‘탄생’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란 이름으로 온전히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첫 행사를 열고 2박3일 일정을 시작했다. 행사는 중소기업 CEO들의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강좌, 제주 곳곳을 탐방하는 문화행사, 친교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1회 리더스포럼의 타이틀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었다. 다시 2026년 10월20일 제주 롯데호텔. 세월은 어느덧 19년이 흘렀다. 포럼이 열린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었다. 일정도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막식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이 2007년 처음 만든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총 16년의 재임기간 15번 치렀다. /중기중앙회

그사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강원도 평창, 경북 경주를 거쳐 다시 제주로 돌아왔다. 한 해도 빠짐없이 열렸다면 올해 20회였을 리더스포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한 해만 건너뛰었을 뿐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포럼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19회째인 올해 리더스포럼의 주제는 ‘중소기업과 함께, AI 3대 강국으로’다. 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탄생시킨 주역은 다름 아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할 말은 하고, 할 일도 하는 중소기업계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며 2007년

초 제23대 회장에 당선된 ‘젊은 피’ 김 회장은 업계내 요구를 반영해 같은 해에 리더스포럼을 만들고 실행에 옮겼다. 55년 생인 김 회장의 당시 나이는 52세였다.

김 회장은 25대를 제외하고 23·24·26·27대 회장을 맡으며 16년간 중기중앙회를 이끌어왔다. 규정상 3연임이 불가능해 김 회장으로선 이번 행사가 사실상 재임 시절 마지막 리더스포럼이다. 김 회장은 총 19번의 포럼 가운데 올해까지 모두 15번을 준비하고 치렀다.

김 회장도 지난 시간을 회고하며 이날 포럼 개최사를 통해 “당시 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이 주관하는 하계포럼에 중

기중앙회가 동참하는 수준이었는데 참석해보니 대기업 위주 포럼이라 중소기업에 맞지 않고 효과도 없었다”면서 “제가 중앙회장이 되고 나서 중소기업계에 특화된 포럼을 만들겠다고 태스크포스(TF)를 짜서 제1회 포럼을 2박 3일로 출범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에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12년 6회 리더스포럼에선 ‘경제민주화’를 이슈로 제기해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소위 ‘경제 3불(不)’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핵심 공약에 반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법인 파산과 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임금체불도 2조원이 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중소기업의 AI 격차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AI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포럼 주제를 ‘중소기업과 함께, AI 3대 강국으로’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개막식에선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영상축

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세계가 AI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국회도 중소기업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취임 후 현장 소동행보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 참석 직후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리더스포럼 만찬 행사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책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제주)=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9.3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 1만명 선발

중기부,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 개최
1차보다 지원자 3만명 늘어 열기 고조
선발자에 창업자금·멘토링·AI 지원

총 9만3000여명이 지원한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1만명의 도전자를 선발하며 본격적으로 닷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1·2차 선전자, 멘토 기관, 선배 창

업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출범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2차 모두의 창업에는 짧은 모집기간에도 1차의 6만3000여명보다 3만명 가량 많은 인원이 신청, 뜨거운 창업 열기를 실감케 했다.

선발된 1만명의 도전자들은 앞으로 창업 활동자금, 전문 멘토링,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을 지원받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멘토링과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투

자유치, 특허출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도전자들이 등장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 함께한 1만명의 도전자 개개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갈 주인공”이라며 “도전자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창업의 전 과정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행사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선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 추진

LIG D&A와 엔진 개발 업무협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LIG 디펜스&에어 로스페이스(LIG D&A)와 손잡고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에 나섰다. 양사의 항공엔진 기술과 유도무기 체계 개발 역량을 결합한 엔진 국산화는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방산 수출 제약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LIG D&A와 유도무기 엔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LIG D&A는 유도무기 체계 개발을,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해당 체계에 적용할 엔진 개발을 맡는다. 양사는 엔진 개발부터 시험·평가, 인증까지 전 과정

에서 협력해 차세대 유도무기 엔진 국산화 역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장거리 정밀타격체계 수요가 늘면서 고성능 엔진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사는 유도무기 체계와 항공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방산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유도무기 체계 개발 역량을 보유한 LIG D&A와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K-방산 기술 국산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귀 모양 달라도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

삼성, 첫 클립형 이어폰 ‘버즈 온’
1억1900만개 시뮬레이션 분석 설계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른데 균일한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 1억1900만개의 시뮬레이션 분석했습니다.”(삼성전자 MX사업부 웨어러블 상품기획그룹 남현정 프로)

삼성전자가 최초로 출시한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을 귀에 걸치자 자연스럽게 밀착됐다.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지만, 적당한 압력으로 귀를 감싸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도 착용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클립형 무선 이어폰으로 새로운 착용 경험과 인공지능(AI) 기반 핸즈프리 기능을 앞세워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지난 1일 공개한 갤럭시 버즈 시리즈 최초의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의 개발 스토리를 소개했다. 갤럭시 버



삼성전자의 최초 클립형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을 착용한 모습. /양성운 기자

즈 온은 귀에 가볍게 걸치는 형태로 주변 소리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면서 음악과 통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발의 핵심은 편안함과 안정성의 균형이었다. 4D 컴퓨팅 기반 AI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귀에 닿는 면적과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설계하고 음질과 통화 품질도 보강했다. 커널형보다 저음 표현에 불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우퍼 스피커 2개를 활용한 ‘트윈부스트 스피커’를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진공

규제자유특구 기업

투자유치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IR-DAY’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IR-DAY’는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특구에서 실증기술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에 민간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진공은 특구 사업자의 민간 투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KVIC)와 협력한다. 한국벤처투자의 풍부한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업종별 전문 투자 심사역을 섭외하고, 기업의 경영 현황과 IR 발표를 투자자 관점에서 심층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해 참가기업의 잠재적인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귀뚜라미, 가족 생활패턴 읽는 ‘AI 보일러’

레이더 센서로 방마다 재실 여부 감지

귀뚜라미보일러가 가족 전체의 생활패턴을 분석해 난방과 온수를 알아서 제어하는 AI 보일러를 출시했다.

귀뚜라미는 ‘거꾸로 NEW 콘텐싱 L10’에 AI 난방과 온수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 생활패턴에 따라 보일러 운전을 알아서 조절하는 ‘귀뚜라미보일러 AI 방방 난방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 AI 방방 난방 시스템’은 각 방의 실내 온도조절기에 탑재된 레이더(RADAR) 센서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하고, 답러닝으로 분석해 방마다 맞춤형 난방을 제공한다.

AI는 각 방을 비우는 시간에 따라 난방 온도를 낮추는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 재

택근무 공간이나 아이 방처럼 1~6시간 정도 짧게 비우는 방은 2시간에 1℃씩 천천히 낮추고, 반나절가량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6~12시간 부재 공간은 1시간에 1℃씩 조절한다.

손님방 등 12시간 이상 장시간 비우는 공간은 30분에 1℃씩 빠르게 온도를 낮춘다. 외출 후 차가워진 집을 빠르게 데워주는 ‘패속 난방’도 적용했다. 가족 모두 외출했다가 돌아와 난방을 가동하면 난방수 온도를 85℃로 높여 최대 10분간 거실을 빠르게 난방한 뒤 기존 설정으로 자동 복귀한다.

온수도 사용자의 생활습관에 맞춰 미리 준비한다. ‘온수 AI 모드’는 하루 24시간을 10분 단위의 144개 구간으로 나눠 최근 6일간의 온수 사용패턴을 분석한다.

/김승호 기자